

# 외환회계 오류에 매출 과대계상... “손실 없지만 신뢰 타격”

## 금감원, 증권사 점검나서

한국투자·신한투자, 회계 오류에 사업보고서 정정 등 신뢰도 하락 평가·투자유치 등 영향 미칠지도

잇따른 회계 오류로 증권업계의 내부 통제와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외화거래이익 산출 오류로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정정하면서 내부통제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환 손익의 상계 처리 관련 회계 오류가 반복되자, 최근 증권사들에 유선으로 관련 질의를 진행하며 점검에 나섰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부서에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자료 제출이나 추가 설명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환 회계 오류가 드러난 신한투자증권(왼쪽)과 한국투자증권(오른쪽).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외환 손익 상계 처리 실제 점검에 나섰다. 중앙은 증권사 대상 조사 상징 이미지. /각사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외환 관련 회계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관련 점검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내부 외환 거래 처리 오류로 약 5조7000억원의 매출이 과대 계상된 사실이 드러나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외환거래이익은 기존 14조6117억원에서 8조8784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금감원의 회계심사가 진행 중이며, 14일 기준 감리 절차까지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신한투자증권도 최근 지난해 외환거

레이익이 약 4500억원 줄어든 정정 공시를 통해 상계 오류를 인정했으며,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외환 손익 상계 착오를 확인해 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 기준상 제외해야 할 내부 거래 손익을 매출과 비용에 모두 반영하면서 수치가 과대 계상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오류는 증권사 외환 거래 구조의 복잡성과 회계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부서 간 외환 거래는 실질 손익이 아님에도, 일부 시스템이 이를 외부 거래처럼 인식해 수익·비용으로 계상하는 구조다. 특히 외환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총액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조정 없이 기표되면 매출이 과대 계상되기 쉽다. 업계에서는 내부 통제 미흡과 회계조정 기능의 누락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류가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회계 오류로 인한 정정 공시는 기업 신뢰도와 향후 시장 평가, 투자 유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계상돼 매출이 부풀려지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투자자와 시장은 매출 규모를 기업 활동의 주요 지표로 삼는 만큼, 실제 이익에 영향이 없다 해도 정보 왜곡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손익의 상계 오류는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정정 공시 자체만으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회계처리가 기준에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불법공매도 저지르면 임원·재임 5년 제한

금융위, 23일부터 개정안 시행 의식계좌 최대 1년간 지급 정지 “주요국 사례 참조해 수단 도입”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사람은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과 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벌금형 금액을 상향했지만 재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비금지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는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익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한다.

단, 금융투자 상품 중 ▲거래 제한이 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자는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익 크기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

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거나 불공정 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감면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6개월+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익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 전기차 넘어 트램·수소차까지 미래교통 주도권 확보 속도전

### 코스닥 기업탐방

#### 피라인모터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자리한 피라인모터스 본사. 전기버스 도면과 배터리 설계 이미지, 자체 플랫폼 ‘K-차대’ 구조도 등이 걸린 회의실은 마치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을 연상케 한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피라인모터스는 중대형 전기버스를 비롯한 친환경 상용차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화성에 KD(반제품 조립)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개발부터 배터리, 충전 인프라,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 화성에 반제품 조립공장 보유 충전인프라·관제시스템 등 자체기술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버스 출시 레일 없는 ‘무궤도 트램’ 사업 주목



경기도 화성 KD 공장 모습. /피라인모터스

모두 잡았다. 8100회 이상의 총병전을 반복해도 성능 저하가 20% 이내로 억제되는 고성능 배터리로, 기존 상용차 대비 약 4배 이상의 수명을 제공한다.

피라인모터스가 최근 주목하는 분야는 ‘무궤도 트램(TRT)’ 사업이다. 레일 없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신형 교통수단은 낮은 건설비와 짧은 구축 기간으로 기존 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시범 노선 사업에 피라인모터스는 차량과 충전 인프라 공급 후보로 참여 중이다. 현재 국내 30여 개 지자체가 TRT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도 크다.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차량을 조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 상용차의 핵심 기술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기술 기업”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주도권을 피라인모터스가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버스를 시작으로 충전기, 플랫폼, 무궤도 트램, 수소차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는 피라인모터스는 미래 교통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량 한 대에 담긴 기술과 신념이 도시를 잇고, 교통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피라인모터스의 행보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대환 기자 kdh@

## 디폴트옵션 펀드 설정액 업계 첫 1조 돌파

미래에셋운용, 전체 시장의 35% 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기준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O클래스) 총 설정액이 1조 3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 1조원 이상은 국내 운용사 중 최초이자, 설정액 상위 2~4위 운용사의 총 규모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도입 이후 현재 국내 디폴트옵션 시장은 총 2조 8,471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가 35.26%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제공하며

연금 시장 1위 운용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전략배분TDF 2035’다. 14일 기준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 설정액은 2161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 시리즈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하며 시장 국면별로 유연하게 미래에셋의 대표 상품에 분산투자한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장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 2035’의 2022년 12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O클래스 기준)은 18.41%다. /허정윤 기자

## 한국투자 ALP 원우회 사랑의 도시락 봉사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ALP(Advanced Leader’s Program for the next CEO)’ 원우회가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LP는 한국투자증권이 영업점 우수고객 자녀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양 및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LP 수료생들로 구성된 원우회는 지난 12일 따뜻한 도시락 260인분을 직접 만들어 서울 영등포 인근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한국투자 ALP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료생을 배출해 왔다.

/허정윤 기자